

안녕하세요. 충남 합격 수기입니다.

제가 시험을 시작할 때부터 2차 끝날 때까지 합격 수기가 제게 큰 도움이 되어 부족 하지만 힘이 되고자 합격수기 남겨봅니다. 특히 충남은 2차 변별력이 크고 저도 그 때문에 합격했기에 2차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1차성적 : 61.67 (1차 컷 : 61)

2차성적 : 미술실기:59.34/70, 심층면접:14.33/15, 수업실연:14.7/15 = 총 88.37

총성적 : 150.04 (최종컷 : 137.44)

■기간제 생활

저는 대학원 졸업 후 기간제 생활 2년 동안 인강으로 타강사 강의를 들었습니다. 일을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복습은 커녕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인강을 듣고 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라는 자기 위안을 삼으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시험 삼아 본 임용고시에서 거의 과락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장지연 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날 선생님께 엄청 혼이 나고 정신을 차린 저는 바로 직강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적인 사정이나 형편 때문에 기간제와 공부를 병행하시는 분들께 딱 1년만 자신에게 공부만 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주라는 겁니다. 한번도 임고에 올린 적이 없는 사람이 기간제를 하면서 공부를 해서 붙는다는 건 정말 극히 드물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독하지 못해서 일수도 있겠지만 주변에서도 흔히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공부에 올인 할 수 있는 형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2년간 기간제 하며 모은 돈과 퇴직금 등으로 정말 아껴서 생활했습니다. 저에겐 1년 올인 할 돈밖에 없었고 그래서 더 독하게 무식하게 공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절박함이 올해 꼭 붙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었고 합격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1차]

저는 1차 점수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신 선생님들의 수기를 참고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제가 도움되었던 공부방법이나 스터디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방법

저는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수능도 안보고 수시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부방법을 잘 몰라 무식하게 공부했습니다. 머리에 들어오든 아니든 오래 앉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3월부터 3월-7월까지의 순공부 하루 10시간 이상, 8월-9월 12시간 이상, 10월-11월 14-15시간 이상 앉아있으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스터디 플래너를 손으로 적다가 나중에 귀찮아져서 열풍타 어플로 시간을 재고 캡처해 스터디원들과 공유하며 서로 자극받았습니다. 열풍타는 같이 임용을 준비하는 쌤들의 공부시간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직강스터디

저는 인강으로 2년을 들었고 결과가 안좋았기 때문에 무조건 직강에 갔습니다. 직강 강의를 끝나면 스터디원들과 모여서 이해가 될 때까지 서로 질문하고 스터디원들끼리 해결 안되는 문제는 위상, 장지연 선생님께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그날 배운걸 무조건 다 꼼꼼하게 보고 집에 갔고 서로 놓친 부분을 보완해주며 하다 보니 항상 거의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스터디원 모두 초공정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수험기간 끝날때까지 정신적으로 정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문풀 다시풀기

직강 스터디원들과 했던 스터디인데 5-6월부터 문풀강의가 시작됩니다. 토요일에 시험 보게 되는데 처음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풀게 되면서 정말 혼란스럽고 괴로운 2달이었습니다. 토요일에 시험 본 뒤 모여서 서로 왜 이렇게 답을 썼는지 이야기 해보고 이해 안가는 것은 서로 물어본 후 그날 또는 일요일에 그 문제에 관련된 이론을 다시 공부합니다. 그리고 월화는 교육학 공부를, 수목은 부족한 영역 공부를 하고, 목요일 저녁 구르미 캠프스터디를 활용하여 시간을 정해 지난 토요일의 문제를 다시 풀어봅니다. 필기가 안되어있는 문제를 스터디원끼리 돌아가며 미리 준비해주고 한번 풀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도 줄여서 시험을 봅니다. 그럼 제가 죽어도 못 외우는 문제가 뭔지 알게 되고 부족한 부분을 알게되어 그 문제 답안만 포스트잇에 적어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봤고 굉장히 도움 되었습니다. 5-6월 문제에 나오는 이론은 정말 중요한것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암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10월에 한번 더 시험봤었습니다.

■이론백지쓰기

이것도 직장 스터디원들과 했는데 수요일 저녁에 매주 돌아가며 영역을 정해 그 부분을 백지쓰기 인출하고 그 모습을 구르미 캠퍼스튜디오로 촬영하는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혼자 하면 절대 안하게 되는데 강제성을 띄고 인출하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종이에 하다 손목에 무리가 가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 사용해서 타자를 쳐가며 했습니다. 한글로 하면 좋은게 내가 못쓴 키워드를 변경내용기록을 통해 빨간색으로 추가해 써 넣을 수 있어 출력해 가지고 다니며 다시 암기했습니다.

10월 말~11월엔 매일 영역을 정해 아침에 백지 쓰기하고 인출 하지 못한 부분을 공부하고 밤에 다시 한번 백지 쓰기 했습니다. 암기-인출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지 확인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도움 되었습니다.

[2차]

이번 년도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이 그러셨겠지만 저는 1차 시험보고 나오는 순간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적었듯이 저는 올해 한해 밖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년엔 다시 기간제를 하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이 있을 때 2차 준비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실기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지역선택

저는 지역선택 때 위상 선생님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수업 중에 지역은 소신껏 쓰는거다 여러번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가 임용에 대해 잘 모르고 무조건 붙어야 한다는 마음에 제가 붙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지역을 여쭙보자는 생각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예고 출신으로 재학시절 실기는 항상 상위권이었고 대학도 전국 대회 상을 받아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위상 선생님께서 제 모의고사 성적과 실기에 대해 들으시곤 실기 70%인 충남이라면 1차를 붙기만 하면 뒤집을 수 있겠다 하셔서 충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기(59.34/70)

실기학원은 노랑진에 있는 소ㅇㅇ을 선택하였는데 이유는 저는 한국화가 가장 자신 없었는데 한국화를 기초부터 세심하게 잘 가르쳐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한국화 시간을 더 추가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선생님들도 잘하시는 과목과 부족한 부분이 있으실 텐데 저는 회화과라 수채화가 강점이고 한국화가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채화 대신 한국화 강의를 2배로 더 들었습니다. (다른 학원에 여쭙 봤을 때에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1차 발표 후 충남은 저 혼자 1차를 붙어 이때부터 외롭게 혼자 시험 보고 혼자 평가받았습니다. 여러 사람의 그림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완성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그림이 없어서 대입학원 그림들을 참고하여 제 그림과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아가려 했고, 대입학원 전임 친구에게 그림을 보내 평가도 받고, 전공자인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에게 계속 제 그림을 평가받고 보완해나갔습니다.

■실기시험

실기시험장 대기실에 모여 관리번호를 뽑고 대기합니다. 이때 중요한게 꼭 프린트된 자료를 가져가세요.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올 컬러로 된 비스학원에서 준 책자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아 이래서 큰 학원을 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물론 자료를 본다고 모두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시험 전이나 점심시간에 저처럼 멍멍멍 멍 멍 멍 있는 것보다 자신이 참고할만한 자료라도 프린트를 해가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모든 자료가 있었는데 핸드폰은 미리 다 제출하니깐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는 과정을 상상하면서 부족하다고 지적받았던 것들을 떠올리며 이미지트레이닝 했습니다.

충남은 17명 뽑았는데 26명이 1차 합격했습니다. 26명을 3개의 실기실로 나눠 9명, 9명, 8명씩 관리번호 순으로 입실했습니다.

-수채화 : 오감자(노랑), 가지2개, 노끈(빨간색), 전구(박스포함 자유롭게 빼서 연출가능)

실기실 안에 커다란 원 모양으로 이젤과 학교 책상 2개(개인 정물대) 배치했고 정물은 1인당 1세트씩 제공하여 자유

롭게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맨 앞쪽에 커다란 전자시계에 숫자가 점점 줄도록 설정된 타이머가 있었습니다. 대입학원 전임강사인 친구가 역대 기출문제를 보고 과자봉지 나올 것 같다고 해서 과자 봉지를 풀러 과자를 흠뻑려 연습해봤고 전구도 예상했던 정물이라 무난하게 완성 했습니다.

-수묵담채화 : 방한용 털신 한 켤레, 샤워볼(파베기모양), 커피메이커, 파란비닐봉투(중) 콜라비

한 실기실 당 9명이 들어가고 학교 책상 4개를 합쳐 놓은 책상이 가로 3개 세로 3개로 배열되어있습니다. 책상 위에 아얀 모포를 덮은 정사각형의 합판을 제공합니다. 정물은 1인당 1세트씩 제공하며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커피메이커와 털신 모두 박스에 포장되어 나왔는데 조건에 커피메이커는 박스를 그리지 말라고 하였고 방한용 털신은 얘기가 없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박스까지 다 그렸습니다. 처음엔 개인용 파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원하는 사람은 그림을 중간에 바꿀 수 없는 조건으로 여분의 종이를 한 장씩 더 받아갈 수 있게 하였다가 이후에는 개인용 파지를 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각디자인 : 충남 애니메이션 박물관 CIP 제작 여백 5cm 남긴 후 왼쪽 시그니처, 오른쪽 캐릭터

수묵담채화와 같은 실기실 구성으로 학교 책상 4개 합쳐 놓은 책상에 어제 파지로 인해 컴플레인이 있었는지 일체 개인용 종이를 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종이 파렛트까지 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CIP 시그니처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쓰라는 조건이 없어서 안썼는데 시험 끝나고 보니 몇몇 선생님들께서는 설명을 쓰셨습니다.

-조소 : 극세사행주(파란색) 종이컵3개(1개이상 변형 찢거나 구기거나 펼치거나)

한번도 정물을 연습 안하고 가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엔 조소할 때 쓸 수건과 물 마시라고 종이컵을 나눠 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정물이었습니다. 이때 마인드 컨트롤이 도움되었습니다. 이걸 정물화라고 생각하고 차분히 구도를 짜고 형태를 잡았습니다. 정물화라고 생각하니 구도와 형태력, 질감표현이 켈 중요할 것 같아 그것에 신경 쓰며 완성했습니다. 정말 극도로 불안했지만 마음 속으로 잘할 수 있다고 잘한다고 다독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소는 제공되는 헤라로만 제작해야 합니다. 신한의 검은 상자에 여러 개의 헤라가 들어있는 세트였는데 굉장히 둔탁하고 섬세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개인 헤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하셨지만 안 가져온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제공되는 헤라로만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꼭 개인 헤라 가져가세요.)

이번 충남에서 실기점수를 대체로 적게 준 것 같습니다. 처음 실기 점수를 듣고 너무 낮아 충격 받았지만 합격자 중에 대체적으로 심층면접과 수업실연에서 고득점 받은 선생님들이 많은데 1차에서 거의 컷에 붙은 제가 최종에서 컷보다 12.6점 높은 것은 실기 덕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도움 되실까 하여 학원 평소 시험 작을 마지막에 첨부합니다.

■심층면접:14.33/15 - 면접스터디 3회독, 충남시책 3회독

1차 합격 전에는 면접 스터디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실기로 인해 너무 몸이 힘들었고 과연 내가 1차를 붙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1차 발표나고 바로 스터디를 구했고 주3일 타 교과 선생님들과 오전에 3-4시간씩 스터디 했습니다. 초반엔 면접레시피 문제 중 영역 정해서 중요해보이는 문제를 프린트 해와서 랜덤으로 풀고 바로 돌아가며 시험처럼 셋팅해 시연하고 피드백해주었습니다. 답변을 할 때는 충남 시책을 최대한 녹여서 대답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평가원 문제라 시책을 볼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면접관 입장에서 같은 답도 시책을 녹여 대답하면 더 이 지역에 적합한 선생님이라는 인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후반에는 다른 문제집이나 자신이 직접 만든 문제로 준비해왔습니다.

실기학원 끝나고 집에가서 1-2시간씩 면접 공부하고 자고 7시에 일어나서 면접 전화 스터디를 매일 했습니다. 8시에 스터디가 끝나면 바로 노량진 스터디 카페에 가서 면접 공부를 하거나 위에 쓴 면접스터디를 실기학원 가기 전까지 했습니다. 이때는 수면시간이 하루에 4시간 정도 였습니다.

저는 실기시험 때문에 시험 주 1주일 정도를 면접 스터디를 못했는데 실기시험 끝나고 개인적으로 짭 스터디를 구해 마지막으로 시험 전날 하루 연습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술교과 다른 지역 선생님이셨는데 엄청 밝고 긍정적이셔서 절로 저도 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사하는 법부터 웃는법, 표정까지 세심하게 체크 해주시고 힘이 되는 말 많이 해주셔서 시험장에서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정말 스터디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시험 당일에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계속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대기실에서도 거울 보고 방긋방긋 웃으며 연습하였고 처음 들어가서 인사할 때부터 복도까지 우렁차게 들릴 수 있도록 밝고 큰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면접과 실연은 자신

감과 밝은 인상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틀린 답안도 당당하게 답처럼 얘기할 수 있는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대기실에서 두 팀으로 나누어 시험장 2개로 진행했습니다. 시험장은 교실에 뒤편에 의자를 2-3줄로 몰아놓고 교실 가운데쯤 면접관 5분의 책상이 있어서 수험생과 면접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왼쪽에 숫자가 줄어드는 커다란 전자시계가 있었습니다.

■수업실연:14.7/15

수업실연은 2차 발표 후에는 스터디룸 구하기가 힘들다는 말에 1차 시험 전부터 미리 구했습니다. (1차 시험 전에 미리 스터디룸을 3-4명 정도로 예약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2차 경험이 없어서 스터디 구하기 힘들것이라 생각했는데 기간제 경력이 있어 운 좋게 스터디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경험 많으신 선생님들 사이에서 꽤 안끼치려 열심히 준비해갔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다들 2차 경험도 있으시고 기간제 경력이 있으셔서 피드백을 세심하게 해주셨습니다.

수업실연은 무조건 학생과의 상호작용과 발문입니다. 모든 것을 발문으로 학생들에게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교사의 태도와 무한 칭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실연스터디는 1차 발표나기 전까지는 주 2회 3시간씩 진행하였고 1차 발표 후에는 주1회 4시간 진행하였습니다. 수업시연은 미리미리 준비해놓았고 실기와 면접이 너무 급박 해서 막판에는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대기실에서 면접과 똑같이 두 팀으로 나뉘으며 뒷번호를 뽑으면 오후에 실연을 하게 되어 점심을 먹어야 합니다. 꼭 도시락을 싸가세요. 시험장은 면접장과 동일한 모습이었고 면접관과 너무 가까워 순회지도 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과학+미술 융합 수업이었는데 기간제로 일할 때 다뤘던 수업이라 자신감 있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저는 매번 모의고사 문풀에서 중위권 성적이었습니다. 막판에는 멘탈이 무너질까봐 성적과 등수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시간 중간중간마다 위상, 장지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장에서 터지는 애들이 있다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다.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안 믿어 주는데 나라도 나를 믿어줘야겠다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만 했습니다.

선생님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세요. 저는 이 모 든게 끝나고 후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그 좋아하는 친구도, 핸드폰도 다 끊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여행도 다녀와야 힐링되어 공부가 잘된다. 주말에 친구 만나서 놀아야 스트레스 풀려서 공부에 더 집중 할 수있다 하시는 선생님도 계실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았어요. 떨어지면 그때 놀지 말걸 그때 쉬지 말걸 하는 생각으로 나 자신을 괴롭힐 것 같아 그런 요소를 다 차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왔을 때 정말 못 보고 나왔지만 아쉬운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했고, 이렇게 내가 공부하고 떨어지면 그냥 난 임용 안 본다 생각했어요.

사실 전 1년 동안 공부만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그림 그릴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보시는 선생님들 모두 내년에 교단에서 만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 동안 열성적인 가르침을 주신 위상 선생님과 장지연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학원 평소 작 (시험 작 포함)



